

## 헌신의 길

골로새서 4:7-13

교회에서 자주 사용하는 단어 중에 '헌신'(Devotion)이란 말이 있습니다. '바친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이죠. 시간을 바치고, 삶을 바치고, 물질 등을 바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우리의 시간과 삶과 물질 등을 바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런 헌신을 말할 때에 성경에서 본이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완전히 바치신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 우리가 말하는 헌신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초대교회 때에 예수님처럼 살고자 했던 몇몇 사람들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들을 '신실한 일꾼, 위로를 주는 사람, 많이 수고하는 자'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예수님처럼 살기를 원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거룩한 소원입니다. 이 소원이 커갈수록 우리의 모습은 더욱 주님을 닮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본문에 나와 있는 예수님을 닮았던 세 사람에게 대해서 함께 살펴보면, '그리스도께 헌신한 사람으로서 오늘날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첫째 인물은 “두기고”입니다. 7 절 말씀에 '두기고는 신실한 일꾼'이라고 했습니다. 성경에는 '신실하다'는 용어는 '충성되다, 진실하다, 믿음이 있다' 등의 단어와 동일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두기고”는 바울의 3 차 전도여행 때에 함께 수행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바울의 신임을 받아서 골로새 교회와 에베소 교회에 바울의 편지를 직접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 후에는 “디도”가 사역했던 그레테 지방에 파송되어 목회를 했고, 에베소에서 목회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전설에 의하면 후일 소아시아의 콜로폰(Colophon, Minor Asia)의 주교가 되었으며, 마지막에는 순교했다고 전해지고 있을 정도로 “두기고”는 대단히 신실했던 사람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일꾼을 고르신다면 어떤 사람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고용주가 되어서 누군가를 뽑아야 한다면 어떤 사람을 뽑으시겠습니까? 많은 여러 가지 기준이 있겠지만 그 중에 으뜸은 '신실한 사람'일 것입니다. 가진 것 없고 아는 것 조금 부족해도 신실하면 믿음이 갑니다. 신실한 사람은 끝까지 변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임금인 “사울”입니다.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났고, 용모도 준수했고, 겸손하기도 하고 참으로 사내다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첫 왕으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마지막까지 신실하지 못했습니다. 인내심 부족과 교만한 마음으로 경솔한 행동을 보이고 맙니다. 신실하지 못한 결과로 하나님께 버림받는 일을 스스로 자초했습니다. 사람과 함께 하는 일이 다 그렇습니다. 첫인상이 좋아서 호감이 가는 사람이 있으나 그것이 끝까지 유지되지 않을 때는 오히려 더 큰 실망을 하게 됩니다. 좀 부족해도 끝까지 일정한 사람, 변함없는 사람이 좋은 일꾼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와 같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항상 변함없는 신실한 분이셨습니다. 마지막까지 함께 갈 수 있는 진정한 동역자요,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이 되시길 바랍니다. 둘째 사람은 “유스도”입니다. 11 절 하반절에 보면 "이런 사람들이 나에게 위로가 되었느니라"고 하는 바울의 고백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면서 자기 곁에서 함께 일하던 ‘유스도’ 같은 사람들 때문에 위로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샌안토니오연합감리교회  
한대섭 목사

바로 알 수 있듯이 사도 바울의 전도사역에는 참으로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굶주리고, 목마르고, 병들고, 때로는 때를 맞고, 돌팔매를 당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런 고생을 하는 자신과 함께 해 주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바울에게 그들의 위로보다 더 큰 힘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유스도’는 그런 사람들 중 하나였던 것입니다. 성도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곁에 있음으로 해서 위로 받는 사람이 있습니까? 나로 인해 내 가족이 위로를 얻으며, 내 이웃이 위로를 받고 있습니까? 내가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위로를 줄 수 있다면 그것은 큰 은혜입니다. 나로 인해서 위로 받는 사람이 있다면 나는 진정한 성도입니다. 성도가 어려움과 고통 속에 있을 때 단지 내가 곁에 있어준 것만으로도 위로를 받을 수 있다면 나는 최고의 신앙인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은 증거요 주님의 모습을 따라 살았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연약한 탓에 그것을 제대로 못합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기가 왜 그렇게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함께 행복해질 수 있는 일도 불행하게 결말이 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내 말 한마디로 누군가를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고, 깎아 내릴 수도 있고 높여 세워줄 수도 있으며, 마음을 따뜻하게 녹여줄 수도 있고 얼음장처럼 싸늘하게 냉각시켜 버릴 수도 있습니다. 내가 무심코 내뱉은 말 한마디가 약이 되기도 하고 독이 되기도 하며 상처를 어루만져 줄 수 있는가하면 가슴에 큰 멍 자국을 남기기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 전에 나오신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유스도’처럼 위로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 한마디 하더라도 따뜻한 위로의 말을 하시고 남을 세워주며 용기를 주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유스도’는 “바울”과 같은 위대한 신앙인에게 큰 위로를 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안에 진정 예수님이 계시다면 얼마든지 가능한 일입니다. 나로서는 할 수 없지만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그렇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인물로 “에바브라”를 들 수 있습니다. '헌신'이란 말속에는 수고하는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수고'는 '열심'이란 말이고 '헌신하는 사람'은 '열심 있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12-13 절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에바브라'는 먼저 기도하는 일에 열심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기도에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중보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중보'라는 말은 '중간에서 돕는 자'요, '하나님과 사람 그 중간에서 대신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본문에 보면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라고 했습니다. 에바브라는 자기 자신보다도 '너희' 곧 골로새교회의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세상에 계실 때 온 교회와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셨고(요 17:6-26 절), 굶주린 무리들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마 14:19 절) 예수님은 사실 자신을 위해 기도하신 적이 없는 분입니다. 겐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조차도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감당하시기 위한 기도였습니다. 이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바브라'는 다른 성도들을 위한 수고를 아끼지

샌안토니오연합감리교회  
한대섭 목사

않았습니다. 라오디게아 성도들을 도왔습니다. 히에라볼리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 수고했습니다. 골로새 성도들을 위해서 수고했습니다. 이 수고는 사랑이 있을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듯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할 때 우리의 믿음은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루 동안 어떤 수고를 하십니까? 사랑에 의한 수고입니까, 아니면 의무적인 수고입니까? 사랑하는 사람에게 행하듯이 다른 성도, 다른 사람을 위해 수고하십시오. 그런 사랑의 수고는 절대 수고하는 자를 지치게 하지 않습니다. 세상적인/의무적인 수고는 사람을 힘들게 하고 낙심케 하지만, 믿음 안에서의 사랑의 수고는 오히려 기쁨을 얻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헌신을 위해서 삶의 방향을 전환한 사람들입니다. 결코 세상 사람들과 같지 않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모두 신실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수의 이름으로 위로를 주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에 열심을 내며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는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